

2023
December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쥬빌리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연말은 한 해가 가는 아쉬움도 있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테러, 기후 변화 등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많았고 국가도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의 불안 요소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렵다는 얘기가 긍정적인 전망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올해는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다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둠 속에 절망하기보다 작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대강절이 년 중 어느 때보다 이웃 사랑이 더욱 절실한 계절입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 전하기 원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의 방문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목회실에서 열심히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보에 공지한 대로 '대강절 예수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 돕기 "따뜻한 희망 상자" 캠페인을 통해 약 500상자 정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개에 약 \$30 상당의 희망 상자를 기부하면 미주 기아대책 본부에서 구호품을 더하여 약 \$50상당의 구호 상자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그렇듯이 성탄절 헌금은 전액 난민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선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갈릴리의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이 그들의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1:5) 연말 바쁘게 움직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잠잠히 앉아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12월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964년 5월 25일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온 후 지난 59년 동안의 삶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곳 뉴욕과 우리 가족이 섬기는 후러싱제일교회가 약속의 땅, 가나안과 다름없습니다.

59년 전 미국을 향해 한국을 떠나올 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26살 청년 시절에 가졌던 믿음, 견디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미국에 온다고 해도 반겨줄 이 하나 없는 나라

였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았던 어린 시절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이 각각 간섭하던 남북은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고, 송학산 위에서(38선) 인민군과 아군 사이에 총소리가 너무 자주 났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터질까 봐 아버지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시어 우리 가족을 이주시키셨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자 다시 개성 집으로 돌아갔다가 6.25 때 우리 가족은 개성을 떠나 극적으로 미군 트럭을 얻어 타고 서울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으로 계속 내려가 온양, 대천 등을 지나 충청남도 끝 장항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일곱 식구가 함께 지냈습니다. 개성과 서울의 집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아버지의 초라해지신 모습, 찢어지고 기워 입은 의복, 구멍 난 고무신, 점심은 거른 채 수제비, 감자, 강냉이로 겨우 고픈 배를 달래던 기억 등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목에 목판을 메고 등에는 배낭에 짐을 가득 짊어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화물 자동차, 기차 등을 타고 다니며 엿도 팔고, 껌, 초콜릿 등을 팔며 장사를 했고, 화주들과 차장들과도 잘 알게 되어 공짜로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여름이면 대천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장사하던 식당에 들어가 밥상을 치워주면서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학창 시절

장항중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을 설득해 서울로 올라와서 중앙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등교하면서 ‘옛 장사 진호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이 되다니!’ 생각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남대문시장에서 군산 양키 시장 물건값보다 싼 물건을 사서 주말이 되면 장항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취 생활 3년을 하면서도 “나는 산다. 나는 산다”고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서아현성결교회에도 열심히 나가서 찬양대도 하고 학생부회장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때 학생회장이었던 친구 김흥수는 목사가 되어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이라 고민하던 차 큰고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한 부잣집 수위일과 입주 가정교사 등을 통해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공동에 위치한新光상사 주식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나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 미국 시카고 본사에서 공장 설립을 위해 임원들이 출장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며 여러 곳을 함께 방문했고, 떠나던 날 김포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배웅하던 중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던 장면을 보았고, 그 순간에 ‘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꿈이 더 강해져서 여권을 만들고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미국 생활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던 날, 비자 문제로 당시 교제 중이던 아내는 함께 오지 못하고 저 먼저 비행기를 탔습니다. 출발할 때 “내가 다시 와서 청혼할 때니 기다려 주겠소?” 그랬더니 아내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4년이었고, 3년 뒤인 1967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누님 집을 거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인 시카고를 생각하며 버스에 몸을 싣고 3일 후 이른 아침에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YMCA 호텔 하루 숙박비가 \$3.75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단돈 \$3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다가, 미시간호숫가 공중변소 옆 벤치에 자리를 잡고, 가방을 베게 삼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고향 땅,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를 펴고 421장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중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배고픔을 참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미국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카고에서 약 8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직장을 잡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권도 없고 신분 해결도 안 됐을 때라 한국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정도 근무한 어느 날 매니저가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휴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나리아가라 폭포라는 데를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나리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영주권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더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여권을 보여 줬더니, 약학을 전공한 걸 알고는 캐나다로 이주해 올 생각이 없냐며 권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이주해서 몬트리올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 한국에 가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죠. 덕분에 1966년에 몬트리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캐나다 시민권도 받았죠. 2년 후 9월에 첫째 아들 재선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1971년에 낳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살던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한국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커네티컷에 있는 한 제약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했는데 합격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곳 역시 커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도 없어서 개인 주택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 갓난 이가 추워서 늘 울곤 했는데 그 상황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한 고층 아파트에 방이 나서 이사를 하였고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살다 보니 외로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어서 회사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10여 명이 살던 브리지포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웨스트 포트라는 타운에 있는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5-6년을 근무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렌트와 생활비로 거의 지출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려고 한번은 주말에 혼자 기차를 타고 뉴욕에 왔습니. 맨하튼을 혼자 걷던 중 30가 5th Ave와 6th Ave 중간에 세를 내놓은 작은 가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을 만나서 그곳을 임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싶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뭘 할지 몰랐습니. 아내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답하고 그다음 주말에 아내와 함께 다시 방문해서 가게를 본 후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팔았는데 \$1에 팔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때가 1974년이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새벽 2-3시에 나가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단골 중 한 명이 식당을 팔라고 권해서 그분에게 넘겼습니.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Wall Street 근처에 세놓은 작은 가게를 보았습니다. 면적이 작은 공간이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andy Store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Candy, 신문, 잡지 등을 팔았습니다. 일 년 남짓 지나서 한 한국 사람이 가게를 팔라고 해서 넘겼습니.

그 후에 Sunnyside Greenpoint에 있는 가게에 렌트를 해서 잡화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소매상 잡화가게를 하면서 도매를 함께했고, 100년 된 빈 공장에 렌트를 해서 화장품 재료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새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다 고쳤습니. 기계도 중고를 사다가 고쳐서 사용했죠. 그렇게 35년을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공장과 가게를 정리한 후 Retire하고 나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선교부장, 목회협력위원장 등 중요한 자리에서 섬길 기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최선을 다해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8만 불을 지원해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센터를 건립했을 때 선교부장으로선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2번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생생한 미국에서 첫날들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을 떠나와 미국 광야 생활을 한 지 58년, 그동안 빈 손들고, 갈 곳 없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던 나의 시카고에서의 첫날 밤, 그 넓고 큰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나의 1주일 동안의 별장이 되었던 미시간파크, 공중변소 옆에 있는 벤치 위에 가방을 베개 삼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잠자리를 마련하고 1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똑같은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가진 것 없고
가난에 시달려 살던 저를 이 좋고 넓은 꿈속에서만
그리워하여 보던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낙원에서 잠을 자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자리 구하여
나만 의지하고 살아온 어머님과 동생들을 위하여 생활비를
보내 드릴 수 있게 무슨 일이건 할 수 있으니
일 자리를 주시고, 또 두고 떠나서 온 사랑하는 애인을
데려와 장가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공한
약학 분야나 또는 내가 가장 꿈꾸고 원하는
조그마한 화장품 공장 내 평생에 한 번
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축복으로 내가 원하고 바랐던 일을 하며 살아온 이 몸 먼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똑바로 살아가세요.



필리핀 웨슬리 신학대학원 교수 이민규 목사

2023년도 어느덧 12월 한 달 만을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성실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작은 실수도 있었고, 소소하게 일어난 일들이 상처로 다가온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생활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적응했다기보다 모든 상황에 익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래도 큰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현지인들과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 어올리기 보다, 내 등에 짊어지고 가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략하게 소식 전해 드립니다.



1. 2023 졸업식



지난 8월 7일 웨슬리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목회학 석사 1명과 목회학 박사 1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이번에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은 지난번 선교 편지에서 소개해 드렸던 Merly V. Rioflordio 목사님입니다. 3년간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고 미안해하는 목사님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되어야 할 졸업식인데 조금은 쓸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실이기에 마음 깊이 축하하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신 분은 Jesus C. Bondoc 목사님입니다. 목회학 박사 공부를 시작한 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양의 업무로 학위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동안 공부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 공부와 열정을 놓지 않고 조금씩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번 여름에 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수업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사역에 큰 자양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앞으로 두 분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필리핀 지역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여러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종합고사

여러 학생의 졸업이 늦춰지게 되면서 학교 행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지만, 현재 3학년 학생들의 차질 없는 과정 이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종합고사 논문 프로포절 디펜스를 진행했습니다. 종합고사를 통해 학생들은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리뷰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수업했던 내용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며 시험을 준

비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서 패스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지만 학기 말에 재시험을 치룰 예정입니다.

또한 웨슬리 신학대학원은 필리핀 고등 교육부의 요구사항으로 모든 학생이 논문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필리핀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이나 지역 교회의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게나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하고, 필리핀 교회의 목회와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분석하며 미래의 새로운 목회를 위한 대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첫 관문으로 논문 프로포절 디펜스를 진행했습니다. 학문적인 우수성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름의 목회 철학과 확고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3. PAMCUS

지난여름 7월에 필리핀 감리교학교 연합(the Philippines Association of Methodist Schools, Colleges, Universities, and Seminaries) 총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의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와 신학교들의 모든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이 연합 모임은 필리핀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연대하여 여러 문제와 도전들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한 차례 모임을 가졌고, 한동안 모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며 올해 여름에 두 번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모임이 구성된 지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셈입니다.



피지 이성일 목사

할렐루야, 남태평양의 산호섬 피지에서 12월의 선교 소식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눕니다. 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양육에 새삼스럽게 초점을 두어야 할 이유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비극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이다. 내가 누군가에서 배워서된 제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피조되어진 되어진 제자와 결이 다르다. 마치 학습무와 강신무가 다르듯이 차이가 난다. 오스왈드 체임버스는 “우리는 영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곳, 즉 십자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거하는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에야 그 능력은 흘러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와 제자들이 연약함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영적 힘의 근원인 십자가, 갈보리의 비극 및 구속의 의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적을 동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제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론이 전기줄에 걸리다!?

11월 12일 시드니 순복음 교회 목사님과 찬양팀이 5등급의 초강력 사이클론 해롤드가 피지에 영향력을 아직 행사하지 못했던 주일 저녁에 피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바누아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후 피지 방향으로 시간당 18km 속도로 이동 중에 있을 때, 선교팀과 우리 학생들은 성령 축제로 모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예 전무했습니다.

피지는 비만 와도 출근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이클론 소식과 더불어 정부와 관공서, 그리고 학교도 공식적으로 다 문을 닫았고, 시장과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피지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집회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저희는 북섬과 남섬의 중간으로 방향을 잡은 이 사이클론이 방향을 바꾸거나 세력이 약화되어 우리의 집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발견한 것은 지난 번처럼 전선을 끊지 않고 전선에 걸친 대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사이클론이 전선줄에 걸려 버렸습니다. 월요일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피지 남쪽으로 방향을 틀은 사이클론의 행적을 볼 수 있어 감사했고, 동시에 사이클론의 위협 앞에서 갈등하는 리더들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모든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론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절반의 학생들이 성령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만큼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맘속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Band of Brothers & Sisters)

주제성구: 마가복음 2:1-12(중풍병자와 네 친구들)

의미

- ‘믿음의 친구’는 말씀묵상(QuietTime)과 말씀실천(ActionTime)을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의 기초 단위이다.
- 중풍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4명의 친구를 생각해 4명이 한 모임이 된다.
- 모여서 우리네 중풍의 현실이 무엇인지 나누고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목적이다.
- 그리고 내 중풍의 현실이 치유되면서 주변에 예수님 만나 고침 받아야 할 친구들을 찾는 것이다. 그 친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고쳐져야 할 세상 문화, 가치관, 구조 악, 환경문제일 수도 있다.
- 중풍병이란 모습은 갖추었는데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개인도 교회도 중풍의 현실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표현했다.(딤후3:5) 교회가 각양각색 이런저런 구색은 다 갖추었지만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다.
- 예수 사랑 성령 능력으로 중풍병에서 고침 받고 제구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구성

- 리더를 포함 4명이 한 ‘밴드(band)’가 된다. (웨슬리는 12명이 한 그룹인 ‘속회(Class)’와 그 보다 작은 수제자 그룹인 ‘band’를 만들었다)
- 리더는 부리더와 예비 부리더를 선정한다. 훈련된 부리더가 다음 band를 조직한다.
- 주1회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T(Study Time, 말씀 묵상)

-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조원들에게 공지하여 모인다.
-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다.(5분)
- 속회 자료 혹은 QT 자료 등을 통한 말씀 묵상 및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20분)
- 말씀 속에서 각자의 중풍의 현실과 주변을 살펴보고 나눈다.(10분)

AT(Action Time, 말씀 실천)

- 나는 대화 중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한 가지 중풍병을 정한다.
- 밴드 멤버 모두가 중풍병을 고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적인 프로젝트 보다는 단기적이고 정기적인 것이 좋다.
- 구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한다.

Planning(계획)

- 그 일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한다. 정보를 얻는다.
-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짠다.
- 실행 계획을 목회실에 알린다. 상의한다. (담당 교역자에게)
- 밴드 모두가 함께 모여 실천에 옮긴다.

Reflection(나눔)

- 다음 모임이나 사역이 끝난 후에 사역의 열매들을 나눈다.
-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각자 생각을 나눈다.
-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나눈다.
- 다음 사역을 위해 1%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모은다.

Leader's to do list(보고)

- 모든 모임과 실천사항은 목회실에 보고한다. (담당교역자에게)
- 모든 멤버의 기도제목을 파악하고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소식 (11월 교회행사)

믿음의 친구들 시작

“믿음의 친구들”이 지난 10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씩 한 Band를 만들어 말씀 묵상과 실천을 병행합니다. 아직 Band 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회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Band 와 실천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수요예배 ‘응답 받는 기도’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는 기도 에 관해 배우고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든 기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시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 예배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새벽 예배는 ‘기쁨의 언덕으로’ 교 재에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삶에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 는 하루하루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터키 지진 피해복구지역 물품 전달

지난 2월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 지역에 피해복구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담임목 사께서 11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안타키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안타키아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며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린 안디옥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낸 헌금은 기아 대책본부가 세운 컨테이너 하우스 500동 캠프 식량 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교회가 특별 구제 헌금을 모아 국제기아대책 본부를 통해 피해복구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인 탁구대회

지난 12일(주일) 전교인 탁구대회가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총 28명의 교인이 참가한 탁구대회는 연령별 우승자를 가렸고 3등까지 시상을 하였습니다. 쌀과 생필품 등 풍성한 선물을 나눴고 참가한 모든 분에게 기념선물을 드렸습니다. 탁구대회에 참가한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성도 추모주일

11월 첫 주 성도 추모주일을 맞아 4일(토) 오전에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주일(5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대강절 묵상집

2023년 대강절 묵상집이 발행되었습니다. 대강절 큰 주제인 소망, 믿음, 사랑, 평화 등 순서에 따라 말씀 해설, 유명 기도문, 기도 제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대강절은 12월 3일(주일)부터 12월 24일(주일)까지입니다.



유초등부 추수감사절 맞이 Thanks Tree 꾸미기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적고, 나무에 전시하였습니다.



12월~1월 행사 안내

영어 목회 신년 기도 집회

영어 목회(English Ministry)에서 신년 특별 기도 집회를 개최합니다.
영어권 회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월 6일 (토), 1월 13일 (토)
강사: HongToo Leow 목사, John Yang 전도사
등록: bit.ly/janrally24

성탄예배

올해 성탄절(12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전날인 24일 주일예배는 평소와 같이 드립니다.
24일 저녁 성탄 이브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 헌금 선교 구제 사용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드려진 성탄절 헌금은 난민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선교 사업에 모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성탄절 발표회

교육부에서는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발표회를 합니다.

일시: 12월 17일 주일 12시 30분
장소: 교육관 2층 유치등부실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강절 예수 사랑 나누기 캠페인 (Advent Gifts of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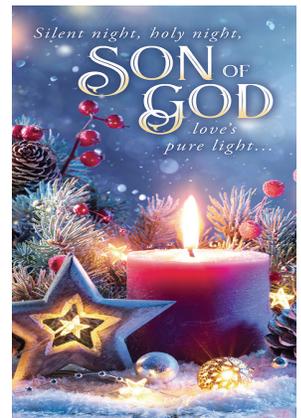
‘희망 친구 미주 기아 대책본부’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 돕기 ‘따뜻한 희망 상자’ 캠페인을 대강절 예수 사랑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월 3일 (주일)부터 12월 24일(주일)까지 실시합니다.

한 상자에 \$30이며 식료품, 생필품, 방한용품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상자 정도 기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의: 목회실 (718-939-8599)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